

제목 : 부활과 생명의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본문 : 요한복음 11장 1-44절

[본문 요약]

1. 나사로의 병과 예수님의 지연

나사로가 병들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알립니다. 예수님은 이 병의 최종적인 결말이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즉시 베다니로 가지 않고 이들을 더 머무십니다. 이러한 지연은 무관심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기다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2. 죽음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잠들었다”고 표현하시며 그를 깨우려 가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죽음의 현실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죽음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위험한 유대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위협보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3. 마르다의 믿음과 예수님의 선언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나사로는 무덤에 있는 지 이미 나흘이 되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에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응답이 늦어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은 먼 미래의 사건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육체의 죽음은 최종적인 끝이 아닙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은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현실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4. 마리아와 함께 우시는 예수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며 마르다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와 사람들의 눈물을 보시고 깊이 비통해하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수님은 곧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아셨지만 그들의 슬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우시는 자비로운 주님이십니다.

5.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이미 냄새가 날 것이라고 염려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은 죽음과 부패라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보다 예수님의 권세가 더 크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사로를 살릴 수 없었지만 돌을 옮길 수는 있었습니다. 기적은 예수님께서 행하시지만,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도록 부름받습니다.

6.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께 감사하십니다. 아직 나사로가 무덤 안에 있었지만 아버지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음을 확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기도하신 목적은 둘러선 사람들이 다음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사로의 소생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기적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자 부활과 생명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7.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시자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옵니다. 죽음도 예수님의 음성에 복종한 것입니다. 나사로는 다시 죽을 육체의 생명으로 돌아왔지만, 이 사건은 장차 이루어질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들의 마지막 부활을 미리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사로를 풀어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고 공동체는 그가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돕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나눔 질문]

1. 예수님의 응답이 늦어 보였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 기다림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요 11:5-6)
2.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만 믿습니까, 아니면 삶과 죽음을 맡길 주님으로 믿습니까? (요 11:25-27)
3. 예수님께서 슬픔에 빠진 사람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다는 사실은 현재 내가 겪는 상실과 아픔을 바라보는 데 어떤 위로를 줍니까? (요 11:33-35)
4.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지금 내가 믿음으로 옮겨야 할 ‘돌’은 무엇입니까? (요 11:38-40)
5.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요 11:42, 20:21)